

목포의 추억 되살리는 예술난장

오거리 다방에 오세요

1951년 화가 이중섭(1916~1956)은 제주도 피난길에 목포오거리의 한 다방에 들러 잠시 지친 발걸음을 풀었다. 1970년대에는 유신의 칼날에 쫓기던 김지하가 이곳에서 숨죽여 시를 썼고, 극작가 차범석(1924~2006년)은 다방 커피를 앞에 두고 고향 후배들에게 문학의 길을 이야기했다.

서울, 광주, 목포 지역의 화가와 문인들이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목포오거리 일대의 다방에서 예술난장을 벌인다.

목포오거리문화예술단(조병연 단장)은 오는 24~6월8일까지 7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후개념현장미술 목포오거리 다방'전을 연다. 새로운 공공미술의 장을 열고 목포의 매운맛을 전해준다는 의미에서 신(辛) 개념 프로젝트로 이름 붙였다.

목포오거리문화예술단은 목포지역 미술인들을 중심으로 꾸려졌고, 지난 2007년 '담



지난 70년대 예술인들이 즐겨 찾았던 목포오거리 일대의 다방에서 오는 24~6월8일까지 전시회와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예술난장이 펼쳐진다. <목포오거리문화예술단제공>

웅성, 정택근씨 등이 유화와 장승공예를 전시한다. 배달 전문 다방인 '로얄다방'은 '19급다방'으로 간판을 바꾸고 서영배, 조영호, 황애리, 이미지씨가 누드사진과 성담론을 담은 설치 작품과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선남선녀들의 맞선 장소로 인기를 끌었던 '향다방'은 '로맨스다방'으로 탈바꿈했다. 서진옥, 김지희, 배귀영, 박일정씨 등이 사랑을 주제로 유화, 아트북, 설치 작품으로 공간을 꾸민다.

이밖에 '쌔다방'에서는 동양화, 분재, 난, 수석이 전시된다. '뽕뽕다방'에서는 설치 작품과 퍼포먼스 위주의 미술행사가 열린다. 1950~1960년대 음악 다방이었던 '초원다방'에서는 과거의 분위기를 살려 지역 음악 클럽인 '해후름' 회원들이 DJ로 나서

매일 추억의 팝송과 구성진 트로트를 들려준다.

'오거리레스토랑' '나무목식당'에서도 박일정, 박대용, 조영호, 황애리, 정경탁, 강금복씨 등이 판화, 한국화, 조각, 금속 공예 등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은퇴 마담들이 목포 오거리 다방을 즐겨 찾았던 문학, 미술인들과의 추억을 들려주는 '목포다방문화에 관한 전문가 강연'을 한다. '지역에서 미술하기와 그 어려움'을 주제로 한 참여작가 대토론회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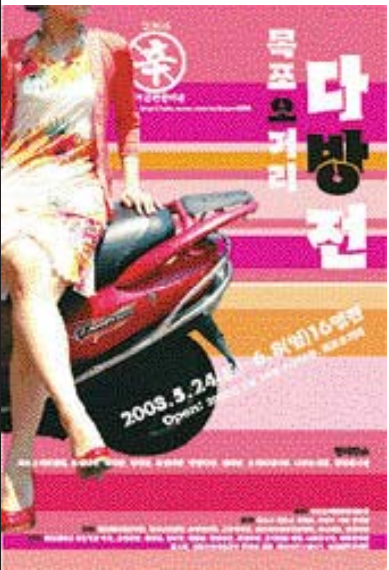
김성호 시인 등 문학인들이 관람객들과 목포 유달산 등을 둘러보는 '문화탐사'를 떠나고, 참여 작가들이 소설가 천성세의 초상화를 함께 그리는 행사도 곁들여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울·광주지역 작가 등 70여명 길거리전 퍼포먼스·문화탐사·강연 등 행사 풍성

양 5일장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정삼우 큐레이터와 판화가 박일정, 한국화가 박대용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오거리 인근 6개 다방과 2개의 식당을 갤러리로 꾸미고, 각 공간의 분위기에 맞는 전시회와 퍼포먼스를 마련한다.

과거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목다방'은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예술을 논했던 옛 멋을 살려 김갑기, 박석규, 김용구, 이



지난 시절 목포오거리(목포 목원동 일대) 다방들은 지역 예술인들이 호남 예술의 르네상스를 함께 했던 사랑방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신도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차츰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제53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합주제

심사위원 이형석 교수(전남대) 변성호 교수(광산대) 최재륜 교수(전남대)

◇ 관현악 합주(초등부) ▲최고상 2 황영지 외 72명(광주송원)

합창제

심사위원 임영만 교수(호남신학대) 김성국 교수(광주교육대)

◇ 관현악 합주(국악, 초등부) ▲최고상 1 황도환 외 65명(광양제철남) ◇ 관악 합주(초등부) ▲최고상 3 강소영 외 65명(광양제철) ▲금상 1 황은규 외 50명(나주) 2 임가희 외 55명(광주중흥) ▲은상 4 김솔 외 20명(살레시오) ◇ 관악 합주(중등부) ▲최고상 1 김지송 외 45명(광주동성여자) ◇ 관악 합주(고등부) ▲금상 1 윤해수 외 13명(나산)

◇ 합창(초등부) ▲최고상 1 이상준 외 60명(효광) ▲금상 3 김민성 외 58명(광주송원) ▲은상 2 박의암 외 59명(광주양동) ▲동상 4 손하나 외 42명(화순만연)

※ 최고상 수상 학교는 컬러 단채 사진 2매를 5월 27일까지 본사 문화홍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김은숙 가야금병창단·빛소리 예술단 공연

흥겨운 국악을 접할 수 있는 무대 가 잇따라 마련된다.

김은숙 가야금 병창단은 21일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남도소리 상설무대에 선다.

'소리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가야금 2중주곡 '침향부', 대금의 선율과 가야금의 리듬이 어우러진 '춘산조', 25현 가야금곡 '황금산의 백도리지' 등을 들려준다. 김은숙 단장을 비롯해 이현·성진희·김창규·김현란·봉선화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510-9254.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이 진행하는 '목요 열린 국악한마당'은 22일 오후 7시 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공연에 나서는 팀은 빛고을국악전수관 국악문화학교 출신으로 구성된 빛소리 예술단으로 사물놀이, 대금산조, 관소리 '흥보가', 설장고 놀이, 살풀이 등을 선사한다. 출연자는 조영란·한지연·김갑기·윤자씨 등이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천 이현구 비평문학상' 김형중 교수 수상

문학평론가 김형중(40·조선대 국문과 교수)이 제20회 소천 이현구 비평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김형중의 소설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을 비평한 '단 한 권의 책'이다. 시상식은 오는 6월 4일 오후 5시 이화여대 삼삼교육문화관 8층 강당에서 열린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문학동네'로 등단, 비평집 '변장한 유토피아', '켄타우로스 비평' 등을

썼으며 미당·황순원 문학상 등 각종 문학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 상은 소천 이현구(1905~1983)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려

지난 1988년 제정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박수만 전국 순회전

31일까지 광주 나인갤러리

만화적 감수성을 자아내는 핑크색 인물상을 그려오고 있는 박수만이 서울 전시에 이어 오는 31일까지 광주 나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박씨는 상체가 유난히 큰 동화적인 인물들을 통해 우리 사회를 우회적으로 풍자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박씨는 깊은 주름이 패인 이마와 과장되게 긴 목, 빈약하고 짧은 팔·다리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현대인의 비틀어진 욕망을 꼬집는다.

전남대 미술학과 출신으로 2002년 신세계 창작지원 미술제, 2004년 송은 창작지원 미술제에서 각각 입상했다. 9차례의 개인전과 광주미술의 현황과 전망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한편 박씨는 6월5~13일 대구 소헌갤러리,



'뫼비우스'

6월19~13일 부산 김재선갤러리에서도 각각 개인전을 갖는다.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最古 차 기록 '부풍향차보' 발견 (扶風香茶譜)

차(茶) 제조법과 다기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발견됐다.

20일 고창의 선운사와 월간 '차의 세계' 4월호에 따르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펴낸 '이재난고'에서 한양대 정민(국어국문과) 교수가 2쪽 분량의 '부풍향차보(扶風香茶譜)'에 관한 기록을 발견했다.

이재난고는 부풍향차보에 대해 부안현감인 이운해(1710~?)가 1755년 고창 선운사(寺) 일대

의 차를 따서 7종의 향약을 넣은 약용차 제조법을 적은 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원본 전체 내용이 아닌 핵심 내용만이 적혀 있다.

기록대로라면 부풍향차보는 최고(最古) 다서로 평가받는 이덕리(1728~?)의 '동다기(東茶記, 1785년)'보다 30년 앞선다.

부풍향차보는 서문과 다본(茶本), 다명(茶名), 제법(製法), 다구(茶具) 등으로 나눠 차의 특징과 성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A large advertisement for a movie festival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such as '메가박스',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하미 시네마', and '제일 시네마'. Each listing includes movie titles,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